

# 고경명·호남의병 애국혼 다룬 창작극 광주서 첫선

‘1592 임진-고경명과 호남의병’ 26~27일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금산전투 참전 의병 사투 그려 “지역 콘텐츠 전국에 알려지길” 장군 후손 단체관람 감사 전회

432년 전 금산에서 왜군들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제봉 고경명 선생과 조국을 위해 이름 없이 쓰러져 간 호남 의병들의 이야기가 광주 남구에서 다시 쓰여진다.

26일 오후 4시 창작극 ‘1592 임진-고경명과 호남의병’이 광주 남구 봉선동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막을 올렸다.

‘1592 임진-고경명과 호남의병’은 남구가 연극을 통해 의병장 고경명 선생의 애국 및 희생정신을 재조명하고자 ‘무대로 만나는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연출은 문학계 그랜드슬램(시·소설·희곡 3개 장르 등단) 달성자로 이름을 알린 최치언 작가가 맡았다.

그동안 소수의 배역이 출연하는 갈등·심리 구조 위주의 연극을 연출해 온 그가 서사가 강한 사극을 맡게 된 계기에 대해 ‘지방의 문화 소외 현상 타파와 지역 문화 활성화’라고 피력했다.

최치언 연출가는 “광주를 포함해 지방에도 각종 문화 콘텐츠에 활용될 만한 자원이 많지만, 수도권에만 집중된 문화 인프라는 아쉬운 점”이라며 “광주·전남의 극단들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점인 스토리텔링을 살려



26일 광주 남구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에 오른 창작극 ‘1592 임진-고경명과 호남의병’에서 배우들이 목숨을 바쳐 싸운 선조들의 사투를 재현하고 있다.

부족한 자원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생산해 내 지역의 작품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광주 의병들의 역사를 소개하면서도 다른 지역에서 오르고 있는 작품들과는 다른 특색 있는 창작극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경명 역을 맡은 고창 출신 11년 차 배우 엄지성(38)씨는 창작집단 상상두목에서 활동하며 여러 차례 사극에 출연한 바 있다.

그는 “지금 시대에는 이해하기 힘든 고결한 뜻과 정신을 가졌던 고경명 선생 역을 맡게 돼 영광이다”고 무대에 오르기 전 소감을 밝혔다.

해당 무대는 광주 남구의 한 공무원의 노력으로 인해 시작됐다. 현재까지 광주

자치구에서 고경명을 주제로 한 창작극은 이번이 최초다. 자치구를 넘어 지역 예술계에서도 고경명과 의병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고경명의 후손들이 사는 진주에서는 창작극 제작 소식을 듣자마자 문중에서 남구에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연극이 무대에 오른 이날 버스를 대절해 방문했다.

공연에 앞서 남구에서는 고경명과 호남의병의 후손들을 위한 차담회가 마련됐다. 이들은 목숨을 바쳐 싸운 선조들의 사투를 재현한 광주 남구의 노력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하며 일평생 기다려 온 연극 관람을 목전에 두고 북받치는 감정을 드러냈다.

고경명 장군의 16대손이라고 밝힌 고

영욱(82) 진주향교 전교는 “이런 기획을 실천으로 옮긴 광주 남구에 감사할 따름”이라며 “조상의 고귀한 뜻이 눈앞에서 실제 배우들을 통해 재현될 현장을 생각하니 벌써 눈시울이 붉어진다”고 말했다.

김병내남구청장은 차담회에서 “고경명 장군은 광주정신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신을 후대에서도 발굴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남구의 공직자는 물론 모든 광주 시민이 국기로 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경명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참패할 수 밖에 없다고 예상됐지만 목숨을 걸고 6000명의 의병을 이끈 채 금산전투에 참전했다. 조선의 왕과 수많은 장군이 목숨을 부지하려 피난길에 나섰을 때 그는 조선 의병들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죽음의

길’로 들어서는 선택을 결심한 것이다.

극에서는 금산을 지키려 진군한 고경명과 정예 의병 900명이 왜군의 포위 속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인다. 이때 고경명 장군은 의병들에게 외친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린 죽기 위해 이곳에 왔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이다.”

이에 의병들은 한 목소리로 “사즉사!”를 외친다.

이는 ‘죽을 각오로 싸우면 살길이 열린다’는 뜻의 ‘생즉사 사즉생’과 달리 오직 죽어야만 하는 운명을 알고 참전한 당시 의인들의 뜻을 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전 국민이 아는 임진왜란을 소재로 모두가 잊어버린 역사를 파고들었다”며 “실재했던 광주 남구의 인물들과 역사를 배경으로 우리 지역민이 꾸준히 찾아오는 연속성 있는 문화 상품을 개발하고자 시작한 계 연극을 구상하게 된 계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고경명 장군을 비롯해 호남의 의병들이 추구했던 공동체 가치인 ‘의’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관객들도 많이 공감하고 감동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592 임진-고경명과 호남의병은 26~27일 양일간 광주 남구 봉선동 남구문화예술회관에서 3차례 펼쳐진다. 남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1회 공연당 관람객은 300명 내외다.

글·사진=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 전남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에 이근배 교수 선출

### 2순위에 송진규 건축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제2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통해 이근배 교수(의대 정형외과)가 1순위에 선출됐다.

26일 전남대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는 총 7190명의 투표자가 참여했으며, 이 교수는 환산득표수 768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2위에는 579표를 얻은 송진규 교수가 올랐다.

이근배 후보는 오전에 진행된 1차 투표에서 4명의 후보 중 1위를 차지했으나, 과반수를 넘지 못해 결선 투표로 넘어갔다.

이번 총장임용후보 선거는 광주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과 의뢰 아래, 온라인 투표로 진행되었으며, 투표 전 과정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했다.



이근배 교수

송진규 교수

향후 이 교수와 송진규 교수는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논문 및 연구윤리 검증과 교육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전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남은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 한숨 돌린 영암군수, ‘불법 경선’ 2심서도 벌금 90만원 선고

### 아내도 벌금 90만원...군수직 유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이종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순희 영암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를 면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당선자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별도의 상고가 없이 형이 확정될 경우 우

군수는 직위를 유지한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경선 투표 전화가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답한 뒤 일반 유권자 투표에 참여하는 이종투표를 지시·권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소지 허위 기재, SNS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조장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종투표’ 의혹이 일자 민주당은 기존의 경선 결과를 배제하고, 재경선을 진행했고, 우 군수는 2차 경선을 통해 민주당 공천을 받고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앞서 1심은 우 군수가 권리당원 1명에

게 이종투표를 권유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 민주적 정당성과 소속 정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 다만 당내 재경선을 통해 별개의 절차로 선출돼 영암군수 후보자로 최종 선출됐다. 결과적으로 경선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우순희 영암군수는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 ‘음주운전 추적’ 유튜버, 애먼 운전자 괴롭혀 검찰 송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하는 유튜버가 애먼 운전자를 쫓아가고 차량을 멈춰 세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40대 유튜버 A씨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등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광주 북구와 광산구 일대 도로에서 구독자와 차량 여러 대를 동원해 음주 의심 차량을 뒤쫓는 영상을 찍어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조사 결

과 음주운전을 의심받은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운전자 B씨는 A씨 등을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후 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50분께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에서도 구독자들과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경찰에 신고하고 이동 경로를 뒤쫓으며 당시 상황을 생중계로 내보냈다.

30대 중반 운전자 C씨는 A씨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2km가량을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 갓길에 주차된 시멘트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졌다. 정성아 기자

### 내일 광주독립영화관·유족 5명 참여

광복 후 7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사연과 피해 사례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서태석(84)씨의 부친은 1941년 일본 해군군속으로 끌려갔다가 1943년 5월 남태평양 팔라우 섬에서 사망했다. 서씨와 그의 부친 사이에 남아 있는 추억은 어린시절 아버지와 찍은 흑백 사진 1장이 전부다. 해방 후 서씨 부친의 동료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 1장만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서씨는 얼룩진 흑백 사진으로 많은 사연을 풀어놓을 예정이다.

박진주(76)씨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피해자 유족 5명이 나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사연과 피해 사례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서태석(84)씨의 부친은 1941년 일본 해군군속으로 끌려갔다가 1943년 5월 남태평양 팔라우 섬에서 사망했다. 서씨와 그의 부친 사이에 남아 있는 추억은 어린시절 아버지와 찍은 흑백 사진 1장이 전부다. 해방 후 서씨 부친의 동료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 1장만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서씨는 얼룩진 흑백 사진으로 많은 사연을 풀어놓을 예정이다.

박진주(76)씨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의 참상을 고발할 예정이다. 박씨의 부친은 귀국선 우키시마 마루호 폭침 사건에서 해임을 쳐 살아 돌아왔지만, 돌아와서도 술만 마시며 폐인처럼 지냈다.

천양기(72)씨는 일본 탄광에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백부의 사연을 풀어놓을 예정이다.

박철희(67)씨는 제주도 일본군해안진지 공사 현장에 투입됐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던 도중 화재로 사망한 옥매광산 희생자 118명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 놓을 예정이다. 그들은 해방 후 어렵게 화물선을 구해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기관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 사고로 118명이 사망했다. 윤준명 기자